

어르신이 행복한 전남... 맞춤형복지 1.7조 투입

돌봄 등 지원대상 대폭 확대
기초연금 수령 비율 80.4%
급식단가 5000원으로 인상



전남도청 전경.

전라남도는 '어르신이 행복한 전남' 실현을 위해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돌봄 등 개인별 맞춤형복지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올해 어르신 행복 예산 1조 7094억 원을 들여 소득보장, 일자리 창출 등 건강과 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르신 행복예산은 전년보다 909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사업별로 기초연금의 경우 지급 기준을 단독가구 169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270만 4000원에서 288만 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6.5% 확대한다. 이력관리제를 통해 지속적인 소득변동을 확인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데도 신청을 못하는 어르신이 없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령 비율은 80.4%로 전국 평균(67.0%)을 웃돌며 가장 높다. 지원 금액은 1인가구 3만~30만 원, 부부가구 6만~48만 원이다.

노인 일자리는 5만 2000개에서 5만

3000개로 확대한다. 노인에 진입한 베이비부머 세대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생산품 판로 개척을 위해 온라인 남도장터 내 '은빛장터' 입점을 확대해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 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 지원 대상을 7839명에서 8094명으로 확대한다. 식사의 질 향상을 위해 급식단가를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해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시대 홀로 사는 어르신의 비대면 상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우울·은둔형 어르신 반려로봇 보급 시

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는 전남도가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성장동력 실증·기획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8억 1000만 원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우울 증세가 심한 어르신 260명에게 반려로봇을 보급해 행동활성화 기법을 활용한 로봇을 통해 말벗, 약복용 알람, 체조, 신체·정신건강 정보 제공 등 우울·은둔형 어르신에게 긍정적 행동을 촉진하는 비대면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화재감지기, 움직임센서에 기반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ICT) 장비 3000

대를 신규 설치하는 등 연말까지 어르신 가정에 3만 2000대를 공급,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고독사가 우려되거나 연고자가 없어 돌봄에 소외된 어르신지킴이단, IoT 대상자에게 ICT장비를 우선 공급한다. 또한 어르신지킴이단 2447명의 활동을 강화해 어르신 안전을 세심하게 살피고 개인별 욕구에 맞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확대해 5만 4000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전남의 노인인구 비율은 2021년 말 기준 24.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국 평균은 17.1%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함에 따라 전남의 노인인구 비율은 더욱 높아져 노인복지 수요가 크게 늘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비대면 돌봄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노인인구가 계속 늘고 추세에 맞춰 노인복지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어르신께서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도록 한 번 더 안부를 확인하는 등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는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영양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경북 영양군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수행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영양군은 민원제도 운영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아 대구·경북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또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최초 시행된 2017년 이후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가' 등급을 받은 것은 기쁜 영양군이 유일하다.

또한, 지난 11월 24일 민원공무원의 날에 2021년도 '국민행복 민원실' 인증으로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음으로써 민원분야 최고의 상을 모두 획득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하동섬진강쌀, 美 수출길 올라

청정지역 하동에서 생산된 명품 하동섬진강쌀이 새해 들어 첫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하동군은 13일 하동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하동섬진강쌀 선적식을 가졌다.

이날 수출길에 오른 하동섬진강쌀은 18톤 5만 달러어치로, 미주 전역 H-마트로 수출돼 판매될 예정이다.

/하동(경남)=장병호 기자



보성읍 보성역주변 도시숲 조성 모습

보성군, 마을 전통숲 복원사업 추진 1000만 그루 도시숲 목표

사업 효과 높은 지역 대상지 선정 전문가 합동 현장조사 실시 예정

보성군이 2022년 산림복지 향상을 위해 특색 시책사업으로 '마을 전통숲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읍면별 기초조사에 들어간 보성군은 주민 생활권과 가까운 숲을 중심으로 공공성과 역사성을 띄고 사업 효과가 높은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할 방침이다.

1차적으로 읍면에서 현장 기초조사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지를 제출하면 2차적으로 군에서 전문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읍면별 1개소씩 총 12개소를 최종 선정한다.

'마을 전통숲 복원사업'은 방치된 산림 자원을 살리면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주민 생활 밀착형 숲 생활권 조성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보성(전남)=문쌍환 기자 m8527188@

부산시 초미세먼지, 관측이래 가장 맑아

'나쁨일수', 7일에 불과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시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가 15 $\mu\text{g}/\text{m}^3$ 로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지난 2018년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 환경기준이 25 $\mu\text{g}/\text{m}^3$ 에서 15 $\mu\text{g}/\text{m}^3$ 로 강화된 이후 부산이 7대 특·광역시 중 처음으로 환경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초미세먼지 좋음일수(15 $\mu\text{g}/\text{m}^3$ 이하)가 231일로 최근 3년(2018~2020년) 평균이 150일에 그쳤던 것에 비해 81일(54%)이 증가하였고, 나쁨일수(36 $\mu\text{g}/\text{m}^3$ 이상)는 같은 기간 38일에서 7일로 31일(81%)이나 대폭 감소하는 등 대기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산=장병호 기자

진주시,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난 해소

주차면 20면 이상, 3년 이상 개방

진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공영주차장 조성만으로는 주차난 해결에 한계가 있어, 이미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공유하여 민관이 함께 주차난을 해결해 나가는 사업이다.

시는 2021년 10월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올해부터 사업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주차면 20면 이상, 3년 이상 개방을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주차장 시설 개선 공사, 보안 설비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시설은 진주시 교통행정과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현장조사 및 검토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규모, 개방조건 등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한 뒤 사업 지원 및 부설주차장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주(경남)=장병호 기자 metrobusan1@

여수시, 난임부부 지원 확대 횡수제한·소득기준 폐지

여수시가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횡수 제한을 없애고, '한방 난임치료' 소득기준도 폐지해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최대 2년까지 총 4회로 지원 횡수가 제한되었으나, 이달부터는 횡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한방 난임치료비는 1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여수시 보건소 모자보건실(학동)로 하면 된다.

/여수(전남)=김용환 기자 jijacecom@



설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사무소는 설을 앞두고 명절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 사법경찰 7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20여명을 투입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사이버단속반의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단속강화를 위해 필요시 지자체, 수품원 등과 합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담양(전남)=최영삼 기자 dudtkd2343@

함평군, 해양수산 민간보조사업 접수

양만장 시설 개선 등 총 17개

전남 함평군이 해양수산 분야 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신청을 이달 28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사업은 친환경 양만장 양식시설 개선사업, 어선어업 생산성향상 시설개선사업, 양식수(중형관정) 개발지원사업 등 총 17개 사업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함평군 축수산과로 이달 28일까지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지조사 등을 거쳐 함평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회를 통해 3월 중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함평(전남)=김태수 기자 ts7080@